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 HGIT Newsletter

2018년 제19호 겨울호(12월)

발행인 조민호

편집장 박창진(36기)

편집위원

33기: 서정민 / 35기: 강승희

36기: 박창진

37기: 오은영, 최별, 노푸른, 김서정, 이서운

38기: 성주한,

2018년 12월 창간/19호

<http://tourism.hanyang.ac.kr/>

2018년 12월 21일 #1

## 글의 순서

1. 겨울불빛축제소개
2.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해외 관광지
3. 북한 관광길 – 평화 길이 열리면 관광산업에도 활성화가?
4. 세계문화의 이해
5. 해외 답사기 – 상해 편
6. 외국 항공사 승무원으로 산다는 것
7. 심장이 푸퐁푸퐁, 겨울에 가기 좋은 대만 여행
8. 국제관광대학원 원우들의 열정의 스터디

## # 1. 겨울불빛축제소개

글/구성 35기 강승희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오색 별빛 정원 전**  
(2018.12.05 ~ 2019.03.31)

겨울이면 생각나는 축제는 바로 불빛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소재로 별빛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고요수목원은 자연 속 아름답게 조성된 정원답게 계절마다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게 표현 해내고 있는 곳입니다. 경기 가평군 상면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은 12월5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오색별빛정원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오색별빛정원전은 어둠이 내리면 빛으로 피어나는 정원을 전시하는 축제입니다.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오색별빛정원전)

오색별빛정원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사랑을 받아 성장했으며, 12회를 맞은 지금은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오색별빛정원전)

특히 이번 오색 별빛 정원 전은 “별빛 동행”이라는 주제로 정원의 테마를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 낸 것이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는 행복한 동행을 바탕으로 이에 맞는 풍경이 조성돼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



꼭 가봐야 할 명소”로 선정되었습니다.

**\*포천 허브아일랜드 불빛동화축제**  
(2017.11.01 ~ 2019.10.31)

(포천 허브아일랜드 불빛동화축제)

허브아일랜드 불빛동화축제는 4계절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찾아오면 다른 계절과 달리 특별히 월동에 들 어간 허브의 자리를 더욱 화려하게 꾸미는 불빛들의 환상적인 야경이 펼쳐져서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겨울 하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정취를 느낄 수 있



는 힐링장소, 피톤치드가 풍부한 잣나무숲에 위치한 “산타 마을” 동화 속 불빛 세상을 만날 수 있는 불빛 동화축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 \*파주 러브인 프로방스 빛 축제

(2018.11.10 ~ 2019.04.30)

(파주 러브인 프로방스 빛 축제)

형형색색의 사랑스러운 빛 조형물과 아름다운 꽃이 이루어진 “러브인 프로방스 빛 축제”는 파주 프로방스만의 차별화된 연인과 가족중심의 사랑 테마 빛 축제입니다.

## # 2.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해외 관광지

글/구성 37기 노푸른

우리 모두 일년에 적게는 한 두 번 많게는 그 이상 해외 여행을 계획하곤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곤 하는데, 이제 곧 겨울방학을 맞이하고 연말 연시에 황금 같은 휴가를 어디서 보낼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제가 비행을 다니면서 경험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몇몇 해외 관광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 \* 휴양지의 1등 관광지, 하와이!



(미국 하와이 와이키키해변)

따뜻한 휴양지 계의 일등 관광지 하와이.

또한 신혼여행자들의 성지 하와이. 높은 파도와 아름다운 해변으로 서퍼들에게 사랑받는 도시이자, 꽃을 목에 걸고 훌라춤을 추며 우쿨렐레가 유명한 대표 관광지.

하와이는 작게는 8개, 크게는 6개의 섬으로 구성되어있는 하와이는 각 섬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휴양을 위한 호텔들과 멋진 자연 경관, 다양한 액티비티 덕에 세계 곳곳 다양한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와이 현지 음식과 함께 아사이 볼, 새우 요리가 유명하고, 세계 각지의 음식도 다양하게 먹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유여행으로 가게 된다면 차를 렌트 하여 드라이브 하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구경하는것을 추천해 드리며, 스카이다이빙, 서핑 그리고 스노쿨링 등 명성 높은 액티비티를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미국 하와이 일몰)

요즘에는 노을 진 바닷가 앞에서 하는 선셋 요가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승무원이 직업이다 보니 하와이를 다소 많이 가봤지만 저 또한 가고 싶은 관광지 1순위는 항상 하와이 인 것 같습니다.

#### \* 요즘 뜨고 있는 따뜻한 나라 베트남 나트랑, 파꾸옥!





(베트남 나트랑 리조트)

요즘 뜨고 있는 베트남 나트랑, 푸꾸옥은 한국에서부터 약 5-6시간의 비행시간이 소요되며, 저렴한 물가와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 곳은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한국인들의 동남아 해외 인기 관광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단언컨대 한국인들의 입맛에 쏙 맞는 맛 있고 저렴한 음식이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 합리적인 가격으로 따뜻한 나라를 관광하고 싶다면 베트남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 \* 그 외 다양한 여행 추천지 (파리, 런던, 일본, 미국)

추운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따뜻한 관광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만약 추운 날씨가 상관 없다 하시면 도시 곳곳이 아름다운 나라 프랑스 파리, 선진국의 정석을 보여주는 영국 런던, 한국과 거리가 가까워 시간적 부담이 없고 가이세키 정식과 료칸이 유명한 일본 유후인, 도심 속 높고 웅장한 건축물이 유명하여 크루즈를 타고 화려한 도시를 투어 할 수 있는 미국 시카고, 등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료칸)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느낀 결과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도 다른 여러 나라 못지 않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로 여행을 갈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충분히 한국에서도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연시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국제관광대학원 교수님들, 직원 분들, 원우분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지난날의 짜증과 슬픔은 모두

잊고 기쁨은 더하고, 사랑은 곁해서 행복이 넘치는 2019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여서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좋은 인연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 3. 생소하지만 가까운 북한관광길 - 평화 길이 열리면 관광산업에도 활성화가?

글/구성 37기 오은영

최근 북미정상회담,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 남북 간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 재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한 평양방문은 남북 간의 문화, 경제 산업 부문의 교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관광분야의 괄목할 만 한 예시로 금강산 관광 재개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남북 간 평화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발전방향과 긍정적인 효과를 북한으로 통하는 세 가지 길인 하늘길, 지상길, 바닷길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채널A 뉴스)

첫 번째는 하늘길입니다.

11월 24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한반도의 하늘길이 열린다면 매년 200억원 가량이 절약됩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남북 항공 회담에서 동, 서해 국제 항공로 연결을 제안했고, 우리 정부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 항로 개설 시 국적 항공사들을 기존 북한영공을 우회하는 항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져 비행시간과 연료비가 절감된다는 분석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연료비가 273억 원이 절감되며 뉴욕 JFK 공항 비행을 기준으로 항공 비용이 1300만원 절약됨과 동시에 비행시간이 42분 단축됩니다. 다만 국제 항공로가 개설될 시, 북한에 지불하는 연간 80억 원의 영공 통과료가 대북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고려할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출처: KBS 뉴스)

## 두 번째는 지상길입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사업이었지만 대북 제재 위반 소지로 인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3일 유엔 안보리가 남북 철도 공동 조사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11년 만에 경의선 철길이 열릴 예정입니다. 두만강에서 금강산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구간은 남북 분단 이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4개의 주요한 국제 철도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 횡단철도인 TCR, 만주 횡단철도인 TMR, 몽골 횡단철도인 TMGR과 시베리아 횡단철도인 TSR입니다. 남북 간 철도가 연결되고 이를 통해 국제 철도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유럽대륙까지 철도를 이용하여 관광할 수 있는 미래가 기대됩니다. 관광뿐만 아니라 유럽대륙 물자 운반에 철도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노후 되거나 중단 되어있는 철길을 보수하여 시설 제반을 갖추고 북한의 안전이 보장되는 조건 하에 발전할 유라시아 대륙 열차 관광을 기대해봅니다.

(출처: 환황해권 크루즈 포럼)

## 마지막 세 번째는 바닷길입니다.

해양수산부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 항구가 개방되었을 시장이나 원산항 지역 교류는 물론이며 나진항을 통한 백두산 관광길을 나설 수 있습니다. 관광교류를 위한 또 하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크루즈 산업에서도 북한과의 교류는 주요 관심 대상입니다. 인천항만공사 터미널 개장에 따라 11만톤급 코스타세레나호를 출항시키며 매년 120회 이상 크루즈 선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남북 평화 교류가 정착된다면 북한 남포항을 잇는 크루즈 항로도 개척할 계획이며 황해권 도시를 연결한 환황해권의 크루즈 관광 벨트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 평화 협력을 통한 교통수단의 발전방향과 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치적인 색을 배제하고, 공정한 절차와 평화 합의가 기반을 둔 남북 간 협력은 정치



적 평화의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칫 허울 좋은 청사진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제반 시설을 다지고 북한의 평화유지를 위한 노력이 합쳐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 가능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기대하며 기사를 마무리 합니다.



## # 4. 세계 문화의 이해

세계 대회에서 엿보는 각국 선수단의 문화적 차이와 특징을 알아보자!

글/구성 37기 최 별

### \* 스포츠 국제대회에서 볼 수 있는 각 국 선수단 문화

#### 1. 이슬람선수단

스포츠 국제대회에서 이슬람 국가 선수단을 보면 경기 중은 아니겠지만, 훈련 중이나 대기시간 틈틈이 기도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무슬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실을 찾거나 하지는 않아도 양탄자 정도는 깔아놓고 메카 방향을 보며 절을 합니다. 라마단 중에 시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수한 상황에 놓인 무슬림들은 그 기간 동안 금식을 할 수 없으면 일단 식사를 하고 남은 날만큼 끝난 후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통 무슬림 국가에는 여자 선수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점점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이집트에 잘하고 유명한 여자선수가 있는데 머리에 딱 붙는 히잡을 쓰고 역도복 안에 타이즈를 위 아래로 입어서 몸을 가립니다. 이 때문에 국제 및 국내 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선수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합 전 기도하는 이슬람 선수단)

## 2. 북한선수단

북한은 전통 역도강국으로서 많은 메달과 세계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대회에 파견 나온 선수 모두가 메달권에 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정치적인 상황도 널리 알려져 있기에 많은 선수단들이 눈 여겨 보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다른 선수단과 대화도 잘 하지 않고 사진도 찍지 않지만 제가 이번에 대회 중, 다가가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역도 강국인 만큼 혹독한 훈련으로 유명합니다. 2018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오강철 선수의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합 전 2달 동안 집에 보내주지 않아 임종 및 장례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선수들의 의지나 간절함 또한 세계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북한선수단과 함께)

경기기간동안 북한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 기록지 등을 출력해달라는 등 부탁을 하곤 했는데, 우리가 쓰는 USB말고 SD카드를 들고 다니는데 리더기가 없어서 열여 보지 못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북한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옥류관 같은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북한 일반 음식을 먹어 볼 기회가 없는데 이번에 정말 운 좋게도 세계신기록을 가진 엄윤철 선수와 계체 후 식사를 함께 하게 되어 북한 밀반찬과 김치를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포장 음식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해외 시합을 갈 때, 보관도 쉽고 먹기도 편하기에 몇 가지 빼고는 마트에서 밀봉된 음식을 사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북

한은 직접 반찬 통에 반찬을 싸 들고 해외 시합을 나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치는 생각보다 맵거나 짭맛이 덜하고 단맛이 강했습니다. 보통 북쪽 지방 음식은 간이 덜 되어있다고 알고 있어 단맛이 날줄은 몰랐는데 나름 먹을 만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김치가 훨씬 맛있지만, 저의 평가를 기대하는 북한 선수단과 임원들에게 ‘와 너무 맛있다.’를 연발했습니다.

## 3. 남미선수단

남미에서 온 선수단은 익히 알려진 대로 흥이 넘칩니다. 운동할 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중에도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역도는 선수가 무대에 올라가서 기구를 들기 전에 응원 구호를 외치거나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선수에게 힘을 주거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O이~’, ‘파이팅!’ 또는 ‘자신 있게!’ 정도로 하는 반면 중국 선수단은 한명이 선창으로 선수 이름을 외치면 나머지가 중국어로 ‘짜요!’를 외치는 것을 3번 반복합니다. 하지만 남미 선수들은 보통 본인이 선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큰 소리로 오래 외칩니다. 내용은 잘 알 수 없지만 계속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말은 아리바! 맘보맘보~ 등 이런 소리를 휘파람과 함께 계속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 입장에서 어수선하지만 특이하고 재미있게 들립니다.

## 4. 중국선수단

중국선수단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세계 정상급 선수가 대부분이기에 지원도 많고 선수단 수도 차이 나게 많습니다. 모자부터 역도화까지 전부 로고 처리된 용품 및 피복도 잘 나오고, 물리치료사가 선수 2~3명당 한명이 파견 나올 정도로 지원이 좋습니다. 그만큼 북한처럼 파견 나온 선수 대부분이 메달권이고, 이번 대회에서는 남, 여 각각 최우수 선수단으로 선정 될 만큼 강력합니다. 한번 친해지면 중국에서 가져온 차를 나눠주며 티타임을 가지는 등 살갑게 대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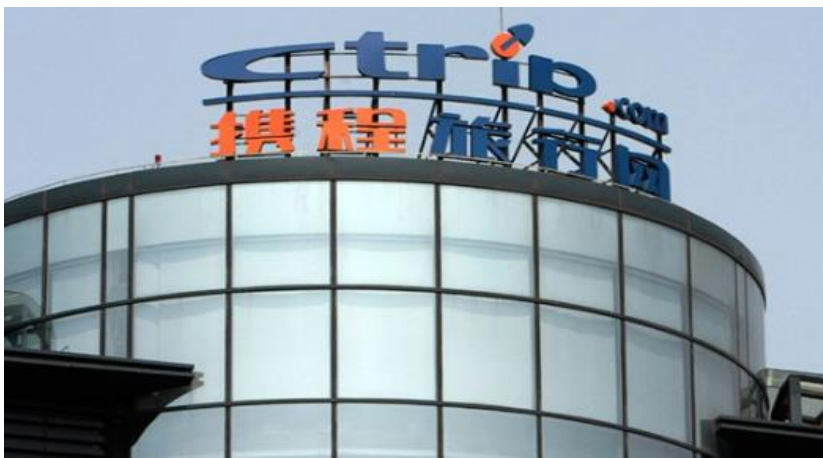
(중국 선수단)

## # 5. 해외 답사기 - 상해편

글/구성 38기 성주한

11월 16일 금요일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국관원 해외 답사의 길에 올랐다. 출발하기까지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던 해외답사여서 그런지 해외 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들떠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신입생으로 국관원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해외 답사를 떠나는 나 또한 상해에서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며 엄청 들떠 있었다. 지금부터 설렘을 안고 다녀온 상해 해외답사에서 국관원 원우들이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떻게 즐기고 왔는지 동영상보다 더 생생하게 알려주려고 한다.

**첫째 날,** 우리는 오전 비행기를 타기 위해 모두 이른 아침부터 공항버스, 지하철들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왔다. 원우회 임원분들이 준비한 샌드위치와 스타벅스 커피를 먹으며 체크인을 마치고 면세점 구역으로 들어갔을 때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엄청 귀여운 인공지능 로봇을 만났다. 말하는 대로 포즈를 취하는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사진을 찍고 인천공항에서의 출발을 알리는 단체사진을 찍은 후 우리는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상해로 향했다.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중국의 향기를 맡으며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중국의 대표 여행사인 씨트립 본사를 방문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씨트립 본사)

씨트립 본사에 원래 투어 프로그램이 있지만 우리가 갔던 기간에는 씨트립의 행사기간이라 따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원우회에서 끊임없는 연락 끝에 씨트립 본사 직원이 직접 나와 씨트립 본사 구석구석을 보여줬다. 철도 모양을 본 딴 씨트립 본사의 외관을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찍고, 씨트립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복도를 지나 씨트립 사무실을 구경하고 마스코트인 요요 와도 사진을 찍고 나왔다. 대륙의 스케일이 느껴지는 중국 대표 여행사 방문이었고, 조금은 부럽기도, 배울 점도 많은 방문이었다.

본사 방문을 마치고 나와 우리는 상해의 중심가에 있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으로 향했다. 지금까지 본 세계 각국의 어떤 스타벅스 매장보다 크기가 컸고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매장이었다.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작은 경기장처럼 자리잡은 스타벅스 매장은 주위의 분위기를 리드하는 건물이었다. 전 세계에 3개 밖에 없는 로스터리 매장에서 해외답사팀은 바로 내린 커피와 함께 상해 첫날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지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숙소로 돌아왔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둘째 날,** 나는 출발 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지금까지의 호텔의 조식은 그저 소세지, 빵, 계란후라이, 우유 정도만을 주는 조식으로 생각을 했다. 하지만 대화 홀리데이인의 조식은 우리나라의 좋은 패밀리 레스토랑의 디너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늦게 일어난 나는 계란후라이와 소세지를 5분만에 먹으며 내일은 꼭 최고의 조식을 즐길 것이라는 다짐을 하고 주가각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버스로 30분을 조금 넘게 달린 우리는 주가각에 도착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수향마을, 주가각)

주가각은 중국 서민들의 삶이 그대로 보존 되어있는 거리이다. 거리를 지나면 중국 로컬 잡화점,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고 중국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음식은 빨간 돼지 족발 같은 것이었는데 아침이라 무거운 음식이 부담되어 샤오롱바오로 메뉴를 바꿔 점심 전 간단하게 요기를 했다.

샤오롱바오 시식을 끝내고 우리는 주가각에 있는 수로를 따라 운행하는 쪽배를 타고 주가각 입구까지 갔다.



베니스의 곤돌라와 같이 쪽배의 선장님이 노를 이용하여 운행해 주시는데, 베니스 곤돌라에서 느끼지 못했던 정겨움, 동양의 미가 느껴지는 주가각의 쪽배였다.

쪽배 위에서 많은 사진들을 남긴 우리는 상해의 제철 음식인 털게를 먹기 위해 다시 버스에 올랐다. 30여분을 달려 제철이라 알이 짝 찬 상해 털게와 중국식볶음요리를 맛있게 먹고 상해임시정부로 향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의 중심지에 위치한 상해 임시정부는 작지만 우리 무거움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지금은 리모델링을 했지만, 지금의 우리들이 생활하는 좋은 공간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열악한 환경이었을 것이라는 짐작하게 만드는 곳이었다. 이렇게 임시정부를 둘러보며 감사함을 느꼈고 임시정부를 떠나고 나서도 그 느낌이 잘 가시지 않았다. 임시정부를 나온 우리는 10분 거리 정도 떨어져있는 상해에서 가장 변화가인 신천지로 향했다. 처음으로 와본 나의 신천지에 대한 인상은 중국 속의 서양이라는 느낌을 받게 했다. 프랑스 풍으로 지어진 건물들과 많은 외국인들, 추운 날씨에도 난로와 함께 야외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중국 속의 서양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긴 신천지를 30분쯤 둘러보다 우리는 상해의 하이라이트인 크루즈에서의 야경을 위해 발걸음을 돌렸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신천지)

이른 크루즈를 타고 끝나는 일정이라서 선착장에 이른 시간에 도착했지만, 모든 야경 크루즈 들이 매진되어 1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포기하고 싶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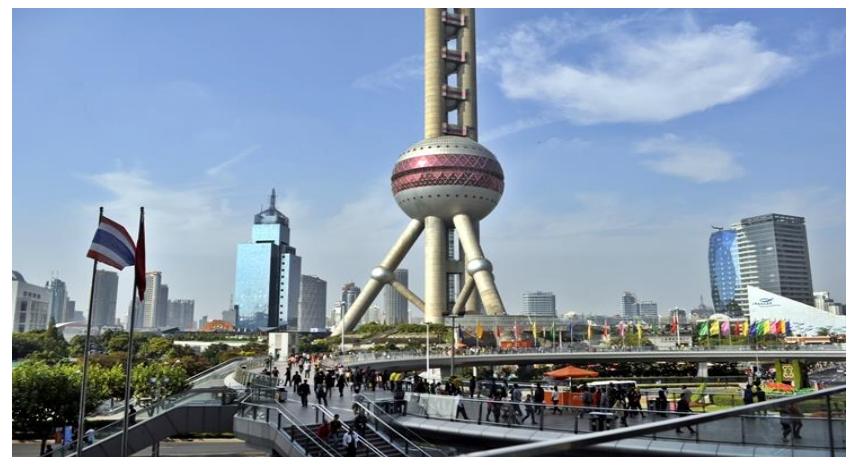
했지만 상해의 하이라이트는 크루즈에서 보는 야경이라는 말을 믿고 해외답사팀은 기다려보기로 했다. 맥도날드에서 약 1시간을 기다리고 상해의 크루즈에 올랐을 때, 우리 모두는 입이 떡 벌어졌다.



(크루즈에서 찍은 상하이 야경)

지금까지의 상해의 외관에서도 많이 놀랐지만 상해 크루즈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고 부다페스트 야경의 웅장함과 홍콩의 세련된 야경이 합쳐진 세계 최고의 야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계속 '우와~'라는 감탄사를 외치며 계속 사진을 찍고 40분쯤 되는 시간을 정말 즐기다가 크루즈에서 내려왔다. 크루즈 야경 감상을 마치고 우리는 호텔과 펍으로 각각 나뉘어져서 향했고 저녁 시간을 즐기고 다음날을 맞을 준비를 했다.

**셋째 날은,** 상해의 트레이드마크인 동방명주를 보러 갔다. 원래 동방명주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몇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야하지만 우리는 이른 아침에 올라가서 바로 올라갈 수 있었다. 아침에 안개가 좀 껴 있긴 했지만 상해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이 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스카й워커였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동방명주)

바닥이 투명으로 되어있어서 고소 공포증이 있는 나에게는 정말 큰 정신적인 고통이었지만, 상해의 랜드마크이기에 두려운 마음을 잡고 몇번의 시도와 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우리는 동방명주에서 내려왔고 까르푸와 보이차집을 갔다가 서울로 돌아왔다.



교수님, 행정실장님, 행정실 선생님들, 선배님들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였고 처음 가보는 상해에서 많은 추억을 남기고 온 나의 첫번째 답사였다.

## # 6. 외국항공사 승무원으로 산다는 것.

글/구성 37기 이서윤

4년 전 8월 어느 날, 한국을 떠나 처음 두바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공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후덥지근한 중동의 향기에 이곳이 내가 살게 될 곳이라는 낯선 기분도 잠시, 저는 땅으로 내려오기까지 매일 다른 국적의 승객, 동료들과 날씨 그리고 언어에 노출되어지는 외국항공사의 한국인 승무원으로써 이코노미와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약 4년간 근무 하였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 함께 했던 나의 여직원 동료들)

제가 근무했던 에미레이트 항공은 아랍 에미레이트의 두바이 라는 도시를 베이스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항공사입니다. 140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이 회사는 2만명 이상의 승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 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 비행 당 12-14개국의 다른 국적의 새로운 동료들과 일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무환경은 단순한 비행을 넘어선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이었고,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달라지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탈리아, 레바논, 모리셔스 등 세계 각국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비행기를 내려온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하며 세상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그 곳에 제 친구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이한 점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바이에 사는 동안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수영장 과 헬스장이 딸린 개인 아파트와 출퇴근 교통을 제공받게 되고, 공과금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물가가 비싼 나라임에도 지내기 충분한 여건이 제공되었습니다. 텍스프리의 급여와 사소하게는 유니폼 드라이클리닝까지도 100%회사의 지원을 받아 생활을 하였고, 이러한 복지의 제공은 집을 떠난 승무원들이 잘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90% 가까이 할인 되어지는 가족 티켓이 제공되어 부모님을 수시로 여행 시켜드릴 수 있었을 뿐 아니라, 50% 할인되는 친구 티켓을 매년 30장 제공받아 제가 살고있는 두바이를 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시간을 한국에서 지내온 제게 외국항공사 승무원으로써의 삶은 그야말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지새워야 했던 밤들, 비행에서 오는 체력적인 한계, 서비스직으로서 감내해야 했던 스트레스, 타지에서 외국인으로서 느껴야 했던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들을 하나 둘 견뎌 내오며, 내 평생에 다시는 없을 드라마가 같은 매일을 선물해준 우리 회사는 제게 살면서 평생에 발 딛지 못할 곳으로의 경험 또한 선물해 주었습니다. 알제리, 요르단, 이집트 등 한국에만 있었다라면 감히 생각이나 시도도 해보지 않을 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었고, 제가 알지 못했던 더 큰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 비행을 갈 때면 입지 않는 옷가지나 물품 등을 챙겨 체류 호텔 부근의 어렵게 살고 있던 현지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었던 기억도 납니다.



(에미레이트 항공 동료들과 찍은 소중한 추억 사진)

매일 다른 곳에서 맞는 날들이, 남들과 다르게 돌아가는 시계가 좋았던 저는 언젠가부터 집을 그리워하기 시작했고 약 4년간의 비행 생활을 정리하고 작년 이맘 즈음, 다



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비행을 하며 만났던 모든 사람들, 발 닿았던 곳들, 알고 봤더라면 아름답지 않았을 것들은 우연히 저만의 추억이 되어주었고, 돌이켜보면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잊지 못할 인생 경험들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떠나와 지낸 시간이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기억은 언제나 미화 되는걸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약 1년이 된 지금, 힘들었던 것보다 좋았던 것, 특별했던 경험만이 제 머리에 남았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던 평범한 어느 화요일 낮, 프랑스 니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며 마셨던 와인, 그날 저는 '내 평생 언제 다시 이런 시간이 올 수 있을까?' 생각하며 지나가는 그 하루하루가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또 다른 일상 속에서 이곳 저곳을 다녔던 그때가 언젠간 다시 그리워지겠지만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해준 우리 회사, 제겐 꿈이었고 도전이었던 우리 회사는 제가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제가 가보았던 그 길을 꿈꾸고 있다면, 힘들지만 너무 매력적인 이곳에 반드시 꼭 도전하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 여정 속에서 제가 부러워할 만큼 더 좋은 경험들로 가득 채워 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GOOD BYE! 에미레이트)

## # 7. 심장이 푸통푸통 겨울에 가기 좋은 대만 여행

타이페이로 떠나자!

글/구성 33기 서정민



(대만 타이페이로 떠나요)

대만의 겨울은 평균 기온이 20.6℃로 우리나라 9월 중순의 가을날씨와 비슷합니다. 가장 여행하기 좋은 성수기이죠. 편리한 대중교통과,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의 성지! 꼭 가봐야 할 먹거리 여행지 대만을 소개합니다.

### 대만 추천여행지

#### #1. 지우편

지우편은 타이베이에서 버스로 약 1시간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계단 길 위에서 아기자기한 상점을 볼 수 있고, 해가 지고 나면 하나 둘씩 밝아오는 홍등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로맨틱한 지우편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낭만을 즐겨보세요.



(홍등이 아름다운, 대만 지우 편)

#### #2. 용신사

대만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용신사는 기둥, 벽 그리고 천장 등 곳곳이 새겨진 아름다운 조각들과 사찰 경내에 있는 2마리의 룡산사 수호 용상이 유명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사찰에 들어오는 불빛을 보고 있다면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용신사)

#### #3. 시먼딩

시먼역 6번 출구로 연결된 거리로 나가면 펼쳐지는 대형 쇼핑몰과 로드샵들, 그리고 대만의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6000여 개에 달하는 노점상! 길거리 음식과 다양한 볼거



리를 즐길 수 있는 대만 젊음의 거리 시먼딩 입니다. 독특한 먹거리로는 ‘아종면선’의 곱창국수가 유명하답니다.



(시먼딩의 추천음식 1, 아종면선의 곱창국수)

시먼딩에서 한 가지 더 맛봐야만 하는 것은 바로 85도씨의 소금 커피 인데요, 디저트류도 판매하니 시먼딩에 가신다면 단짠의 미학을 느껴보세요. (위치: No. 25, Chang'an West Road, Datong District, Taipei City)



(시먼딩의 추천음식 2, 85도씨 소금 커피)

#### #4. 융캉제

대만의 대표 변화가 거리 융캉제! 미식의 나라인 만큼 많은 대만에는 다양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대만의 대표적인 거리 음식, **망고빙수**는 융캉제에 특히 유명한 스무시 망고빙수가 있으니 망고 빙수와 함께 달콤한 여행 즐겨보세요~



(융캉제 추천음식 1, 망고빙수)

융캉제에서 고기 러버들이 꼭 맛봐야 할 음식은 융캉뉴러

우멘의 **우육면** 인데요. 뽀얀 국물과 붉은 국물 중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고기 육수와 부드러운 고기의 조합은 사랑입니다.



(융캉제 추천음식 2, 우육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레스토랑에 선정된 대만의 **딘타이펑** 국내에서도 유명한 레스토랑이지만 본점에서 먹는 시그니처 메뉴 **샤오롱바오**는 정말 맛있습니다.



(융캉제 추천음식 3, 샤오롱바오)

#### #5. 대만의 랜드마크! 101 타워

대만의 랜드마크로, 대만에 왔다면 꼭 방문해야 할 101타워! 타이페이 시내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101타워는 밤에는 야경을 보기에 좋고 낮에는 건축물 자체를 구경하기 좋은데요. 전망대에 방문하여 야경 감상은 필수!

\* 입장료 600 대만 달러(현장 구매 시)



(대만의 랜드마크, 101타워 근접사진)



## # 8. 국제관광대학원 원우들의 열정의 스터디

글/구성 37기 김서정

매주 목요일 수업이 끝나고 난 후 10시부터 11시까지 국제관광대학원 원우들의 열정은 쉬지 않고 빛이 납니다. 모두들 회사 퇴근 후 학교에 와 수업을 듣고 힘이 들 법도 한데 지난 학기 함께 치유 관광 수업을 들은 원우들은 밝은 표정으로 삼삼오오 1층에 스터디를 위해 빌린 강의실에 모입니다. 지난 학기 치유 관광 수업을 들으며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도 익히고, 통계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도 배운 우리 원우들은 지도 해주셨던 김진옥 교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우고 익혔던 지식들을 잊지 않기 위해 또, 더 나아가 논문에 대한 지식과 이론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발전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매주 한가지의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논문을 공부하여 본인이 공부한 새롭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론이나 지식을 공유하게 됩니다. 새로운 이론을 하나씩 발표할 때 마다 우리의 눈은 초롱초롱 빛이 납니다. 새로운 이론을 듣고 질문을 하며 새로운 이론을 알아가고, 대답을 해주며 다시 한 번 이론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또한, 중요하지만 어렵거나 관심이 있는데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내용들은 서로서로 도와가며 자료를 준비하고 그 내용들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의 경우 요즘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우리 주변에는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는 환경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가 짧고,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일컫는데, pc와 인터넷, 모바일 기기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사람들이 도처에 남긴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본인이 원하는 자료와 정보만을 빠르게 찾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빅데이터 중 분산처리방식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기업의 경우 사람들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성 향상과 비즈니스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관광에서 또한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시장의 현황, 변화와 예측, 관광정책의 효과 등을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가 널리 쓰입니다. 특히, 관광분야의 빅데이터는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역, SNS자료 등으로 자연스럽게 구축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관광 학도인 우리 원우들도 관광의 흐름과 관광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 빅데이터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고 공유하는 시간

을 갖았습니다. 빅데이터는 배운 적이 없기에 생소하였고, 혼자 힘으로 하기엔 양이 방대하였기에 우리 스터디 멤버들은 다 같이 자료를 조사하고, 공유하였습니다. 생소한 분야, 혼자 하기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논문들, 이론들을 스터디를 통해 함께 발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며, 서로 도우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스터디를 우리 국제관광대학원 원우들도 많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정예 스터디 애정 합니다! 국관원 원우분들 화이팅입니다!

